

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January 25, 2026, 10:30 a.m.

주현절 이후 세번째 주일 (Year A)

Third Sunday after the Epiphany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예배 순서 WORSHIP OR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예배 기도 Invoca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0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G) All Hail the Pow'r of Jesus' Name

C1152 아름다운 세상과 (G) For the Beauty of the World

C1002 송축해 내 영혼 (E) 10,000 Reasons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마태복음 Matthew 4:12-23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열 두 제자를 부르심 Jesus calls his first Disciples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C1291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Lord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수요 성경 공부 매주 수요일 8 시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 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이사야 ISAIAH 9:1-4

-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시편 PSALM 27:1, 4-9

- 1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 5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 7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 8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 9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THE SECOND LESSON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10-18

- 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 12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 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 14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RCL Epistle Bible Study

Epistle Text: 1 Corinthians 1:10-18

1 본문 함께 살펴보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고린도전서 1 장 10 절부터 18 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로 존재하던 분열의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주님을 고백하고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어느새 특정 인물과 가르침, 개인의 선호를 중심으로 서로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하도록 이끅니다.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다툼을 멈추라는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묻는 신학적 질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묻으며, 교회의 분열이 곧 복음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거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이야기로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사람을 중심에 두거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절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를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부르며, 공동체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차분히 일깨워 줍니다.

2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이 본문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신학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와 약함, 어리석음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말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수사, 뛰어난 지도력이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앞설 때, 십자가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능숙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에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는지보다, 누구의 이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드러내거나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은혜의 수혜자이며, 그 은혜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중심이 됩니다.

3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이 말씀은 우리 각자와 공동체 전체를 향해 조용하지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사람, 방식, 혹은 자신의 경험을 앞세울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부인하기보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공동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모두 동일한 자리에서 있음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도 더 앞서 있지 않고, 누구도 더 뒤쳐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함께 은혜를 입은 동행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겸손과 인내를 선택하도록 이끕니다. 서로의 차이를 문제로 삼기보다,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연결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4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우리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나 전통, 방식이 십자가보다 앞서 있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2.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의 갈등이나 긴장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게 할까요?

3.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의 관계와 사명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5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자랑, 구분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말의 지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THE GOSPEL 마태복음 MATTHEW 4:12-23

- 12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 14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 15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 16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 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 18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 20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 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 22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 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